

건축사 박홍근 토크 콘서트 열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건축이 얼어붙은 음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악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건축도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삶, 건축을 품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펼친 박홍근(54) 건축사는 ‘건축도 유기체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동구 동지교 일명 ‘농장다리’에서 토크 콘서트와 음악회가 열렸다. ‘예술로 빛나는 농장다리’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화예술진흥회 이용하 회장과 이날 자리를 준비한 그는 농장다리가 가진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장다리는 60년대 교도소 재소자들이 농장 사역을 가는 길에 건너던 다리였습니다. 그곳이 집회장으로, 전시장으로 변모하는 걸 보면 생로병사를 겪는 사람과 유사합니다. 건축물에 깃든 이야기를 알면 역사와 우리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네팔 성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원쪽 두번째)가 지난 10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 사무실을 찾아 네팔지진 구호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매년 회원들의 회비 일부를 적립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지진을 두 차례나 겪어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지역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금을 기부했다.

노강규 회장은 “대지진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기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최요인 정원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취임

(주)정원커뮤니케이션은 최근 사내에서 최요인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었다. 최 대표이사는 영암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박사과정 중이며, 아이템오사이오 대표, 광주일보 광고국을 거쳐 (주)정원커뮤니케이션 본부장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어룡초 교장에 감사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중·왼쪽)는 최근 학생들에게 올바른 화폐사용 습관 길러주기 등에 공헌한 광주 어룡초등학교 황덕자 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편견으로 정체된 시골마을 바꾼 건 음악이었죠”

‘기적의 하모니’ 여수 애양청소년오케스트라 박상희 단장

문화교육 시설 없던 도성마을 20여년 전부터 변화 각계 후원으로 아이들 음악 접해...13일 첫 연주회



사단법인 애양 청소년오케스트라 이사장 박상희(여·32·사진)단장은 단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여수시 울촌면 도성마을, 여는 시골마을과 다름없이 한적하던 이곳에 최근 음악 소리와 함께 활력이 감돌고 있다. 지난 3월 사단법인을 설립한 애양청소년오케스트라가 생긴 후 나타난 변화다. 도성마을에 사는 초·중·고 학생 41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시설이 전혀 없는 마을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동안 마을 어린이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한 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학교에 갈 정도로 외진 마을에서 놀이터는 인강생이었다. 고령인 주민이 많아 양로원은 세 곳이지만 그제 전이었다. 게다가 한센병 회복자와 주민들이 같이 거주한다는 사실 때문에 싸늘한 주변 시선을 견뎌야 했다.

도성마을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가 여생을 바친 곳이

다. 손 목사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회적 편견과 싸웠지만 그 흔적은 주홍글씨처럼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박 단장은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마을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음악이었다. 라양오 목사 등 마을을 살리려는 개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박 단장 역시 20여 년 전 그렇게 바이올린을 손에 처음 쥐었다. 그리고 꿈이 생겼다.

“어릴 때 저는 애양원 근처에 산다는 걸 몇 몇하게 말하지 못했어.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숨기고 싶은 고향이었죠. 그런데 음악을 배우며 희망을 얻고 꿈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처음 만들려 했던 것은 지역아동센터였다. 사회복지사인 아버지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꿈꿨다. 하지만 공간을 찾고 상주인원을 갖추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떠오른 건 어릴 때 마을에서 배운 바이올린이었다. 그렇게 사단법인 애양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설립하고 후원자를 수소문해 악기를 마련했다. 4월 14일 첫 연습은 그렇게 시작했다.

연습실에 부족한 의자를 선물한 주민, 합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류한 트럼펫 선생, 장래비용으로 모아둔 돈을 아



애양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첫 연주회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 조건 없이 선뜻 내놓겠다고 밝힌 어르신까지 모두의 소소한 마음이 더해져 ‘기적의 하모니’가 잉태됐다.

악기를 만난 지 이제 갓 두 달. 서툰 실력이지만 세상이 보내준 관심에 보답하는 첫 연주를 단원들이 선보인다.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여수시 울촌면 도성마을복지회관에서 다. 박 단장은 단원들의 ‘오늘’보다 ‘내일’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분 음악을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입니다. 연주회를 목표로 준비한 두 달이란 시간은 턱없이 짧죠. 그렇지만 단원들이 음악을 배우며 가슴에 품게 된 꿈과 희망은 무한해요. 그들이 앞으로 들려줄 멜로디에 귀 기울여주세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식비 아껴 다문화 후원금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조용범·왼쪽 네번째)이 지역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병원 임직원들은 한끼의 식사비를 아껴 모은 3000여만원을 최근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에 전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으로 올해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을 기부했다. 그동안 이 후원금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핵아동이나 이혼 등 가정해체로 어린 손자녀들을 돌

보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에 보탬을 주었다. 이와 함께 병원 임직원들은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운영, 소외이웃을 돕고 있으며, 의료 사각지대 진료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는 의료봉사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정적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조용범 원장은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위한 공정무역 카페 문 열어

광주YMCA ‘아시안피스커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광주YMCA가 공정무역 카페를 열었다. 광주YMCA(이사장 송인동)는 11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문화센터 1층에 ‘아시안피스커피(Asian Peace Coffee)’ 1호점을 내고 기념식을 가졌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카페지기들은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 2007년 공정무역 협약을 체결

한 동티르의 커피공으로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판매한다.

카페 수익금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 교육을 받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인다.

카페 개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회원 100명은 카페에 필요한 의자, 탁자, 도자기 등을 직접 만들고 후원금을 마련하면서 힘을 보탤다. /백희종기자 bhj@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문정씨 차남 순갑군 정권기·박혜선씨 장녀 화영양=13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옛 메리어트)2층 열루체.
- ▲박영철(광산구 월곡2동 동장)·서삼덕씨 장남 정찬군 전병식·이복례씨 사녀 은아양=13일(토) 오후 5시 서구 죽봉대로 라페스타(옛 메리어트)4층 디아망홀.
- ▲유용중·김연숙씨 장남 명일군 운영석·손정숙씨 장녀 가영양=14일(일) 낮 12시 매종노보네 5층 그랜드볼룸.
- ▲전병호(남도일보 부회장)·김금례씨 장남 정인(MBN 사회부 보조팀 기자)·김이영·김옥자씨 장녀 주연(KG이니시스 회계팀 대리)양=13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리자 1층 그랜드볼룸.

동창회

▲재광 순천 매산고 동문(회장 장진훈) 정기모임=16일(화) 오후 7시 첨단부대찌개 062-962-3338.

알림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 장예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모집

-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

- 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빚니다

201호 고정경길 님(남/84세) 子/子婦: 정성태/이신재, 성오/박해경, 성일/황미화 女/婿: 정선화/이정신 未亡人: 박구실 ●발 인: 6월 13일 ●장 지: 화순계곡리성령 ●연락처: 227-4381	301호 하이익만 님(남/78세) 子/子婦: 이정호/고여연, 정일/임해옥, 정택/전희경 女/婿: 이명희/이정우 未亡人: 김민희 ●발 인: 6월 12일 ●장 지: 보성북동 성령 ●연락처: 227-4382
401호 하한락동 님(남/90세) 子/子婦: 한선원/김경애, 의철/윤동기, 점철/이영실, 女/婿: 연철/김준희, 연철/정순복 孫: 한상원 未亡人: 한선례/노재덕, 점애/김영천 未亡人: 김경남 ●발 인: 6월 12일 ●장 지: 장흥홍산 성령 ●연락처: 227-4383	402호 고정광애 님(여/96세) 子/子婦: 조택용/김춘자, 성진/이화순, 성환/이영미 女/婿: 조봉순/송정수, 이순/김재선, 성숙/기기철 ●발 인: 6월 1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하김공영 님(여/88세) 子/子婦: 최인/김관숙, 용오/권경덕, 황희/이은주, 공신/권미화 女/婿: 최은경/김창수 夫君: 최한동 ●발 인: 6월 13일 ●장 지: 담양천주교묘지 ●연락처: 227-4385	102호 하송창수 님(남/68세) 子/子婦: 송주호/류정미 女/婿: 송민화/주영호 ●발 인: 6월 1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문의 (062)227-4000

부음

▲이창진씨 별세 백오(롯데캐미컬)씨 부친상, 박영기(장성초원의 집)·변국연(동서생명과학 대표)·김경태(한국통계진흥원장)·임경석(관세청)·박동정(전 광주일보 이사)·오원근(순천대 교수)·박상범(한의사)씨 병부상=발인 13일(토) 장성장례식장 061-394-0444.